

대한민국 부모님과 선생님께 드리는 편



아이들은



놀이가



바  
입니다



놀이밥 삼촌 편해문 글



소나무

육에 갖다 부치는 것을 볼 때 나는 쓴웃음이 나온다. 이제는 건 팔아먹으려고 별 해괴한 짓을 다하는구나 하는……. 아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글과 영어와 숫자에 관심을 보는 때가 반드시 온다. 부모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엇을 하며 기다릴 것인가. 아이들과 놀면서 기다리는 거다. 아이들이 한글을, 영어를, 숫자를 진정 읽고 싶어 할 때, 그때 부모해도 늦지 않다. 왜들 뭐든지 일찍 시작해서 아이와 관계가 빠지고 돈 쓰고 아이를 이런저런 마음과 정신과 몸의 고통에 빠뜨리는 것일까. 조기교육이나 적기교육 대신에 나는 '놀이면서 기다리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부디 조기교육, 영재교육, 몰입교육이라는 사탄의 종교에 입문하지 마시라. 설령 '조기영재몰입교육'이라는 것이 한 세트로 묶여 유혹을 해와도 말이다.

## 스마트폰은 아이들 놀이의 무덤이구나

놀이와 게임이 다른 것처럼, 놀이감과 장난감 또한 다르다. 놀이감은 자연과 주변에서 손수 구한 것들로 만들고 이렇게 만든 놀이감은 단순하지만, 놀이의 상상을 펼치기에 더없이 좋다. 놀이감을 스스로 만들어 놀아야 진짜 놀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는 데 익숙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손쉽게 놀이감 대신 장난감을 사준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아이한테 값비싼 장난감을 사줬더니 웬걸 아이가 껌데기 상자만 가지고 놀더라는……. 정작 돈을 주고 사준 알맹이에는 관심이 없고 상자에만 관심이 있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이다.

돈을 주고 사주는 장난감, 이게 아이한테 무척 해롭다. 특히 이제 갓 태어난 아기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책이나 영어 음반 그리고 각종 교재교구는 선전하는 것과 달리 아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해치는 악영향이 크다. 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부모야말로 아이

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말해왔다. 아이라는 한 인간의 전체 생애 속에서 영성이 가장 풍성한 때에 세상에서 가장 조잡한 물건 안겨주다니 말이다. 이쯤 되면 다정(多情)은 틀림없는 병이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 준 장난감은 선전이나 광고와 달리 아이들 발달에 거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을 마비시킨다. 학습용 장난감으로 팔아먹는 물건들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부모들의 구매행위는 쉽게 말해 돈 버리고 아이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

장난감과 놀이감 사이에서 돈이 없어 장난감을 사주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안 사줘야, 심심하게 놔둬야, 아이들이 놀려고 궁리를 한다는 것을 아는 부모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괜한 데 속아 돈 쓰지 말자.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거나 본디 놀이감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놀 거리로 삼는 것이 진정한 놀이감이다. 부모라면 장난감과 놀이감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장난감을 사주지 마시라. 집 안에 널린 온갖 것들을 놀이감으로 삼도록 하시라. 가장 좋은 놀이감은 동무이고 부모·형제이고 교사이고 자연이고 엄마가 음식 만들 때 쓰는 주방 조리기구임을 아시라.

앞에서 비석치기를 예로 들면서, 요즘 학교에서 옛 놀이로 비석치기를 가르치는 방식은 놀이가 아니라 게임이라고 했다. 아이와 아무 인연이 없이 일정하게 잘라 파는 것을 사서 나눠

준 비석으로 하는 놀이가 아이들 사이에 뿌리내릴 수 없다. 옛 놀이 체험 수준에 그치기 딱 맞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놀이의 참맛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동무들끼리 만나 부대끼며 노는 놀이를 뒤로 미루고 장난감과 놀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손바닥 게임기를 아이들 손에 쥐여주는 부모는 아이들의 뇌를 녹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과 같다. 이 시기에 손바닥 게임기를 통해 게임에 입문하면 밖에서 뛰어노는 놀이하고는 영영 안녕이다. 몸으로 하는 어떤 놀이에도 아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이를 원한다면 손바닥 게임기를 아이 손에 쥐여 주시라. 노트북처럼 생긴 유아용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가까이해서는 안 될 너무나 해로운 물건임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껴안으면 가슴이 따듯해지는 실제의 것을 만나고 싶어 한다. 아이들은 동무를 만나고 엄마·아빠를 만나 눈을 마주 보고, 손을 잡고, 부둥켜안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한다. 손도 없고 눈도 없고 가슴도 없는 것들과의 만남을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물건들을 자꾸 손에 쥐여주는 어른들이 제 맘대로 그렇게 할 뿐이다. 누가 뭐래도 놀이는 사람하고 만나 어울리는 것이다.

놀이가 가지는 힘은 단순히 재미와 즐거움에 그치지 않는다.

어른이 된 뒤 살아가는 힘으로 자리 잡는다. 어려서 했던 놀이를 돌이켜보면 땅에 그어진 금을 밟아 죽고 사는 일을 참 여러 번 겪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다음 판에 다시 살아나 실패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험을 쌓아 가는데,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어른이 됐을 때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반드시 쓰인다.

10여 년 전 한 스님을 뵈고 아이들 놀이에 대해 여쭙 적이 있었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스님은 어린 시절을 온통 놀이로 보낸 분이였다. 그리고 오늘 스님의 밝은 눈과 생각이 마음껏 놀았던 놀이에서 나온 것임을 보았다. 그날 들었던 스님의 놀이 편력을 감히 옮겨본다. 스님은 이삭 나기 전에 풀뿌리를 캐고 그 흙을 털어 소를 먹이는 일을 맡아 하셨다. 가재도 잡고 고무줄놀이도 했는데 일본말로 사가다시(엮돌기)라는 가장 고난도의 기술을 잘했다고 한다. 이때는 손가락을 세우고 발끝을 세워 하셨단다. 고무줄을 잡은 술래가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에 고무줄을 올려 팔을 하늘로 뻗으면 이 기술을 썼다고 한다.

자치기도 자주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밑에서 위로 걸어 퍼 올리는 '오돔빼기', 멀리 쳐내는 '맛대롱',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던져 넣는 '자치기'를 하셨다고 한다. 어미 자로 새끼 자를 쳐 점수 내기를 할 때 새끼 자를 툭툭 친 다음 마지막에 멀리 쳐내면 새끼 자의 반으로 자를 쥘는데 스님은 요걸 참 잘했단다. 그리고 싸리대 끝을 뽀족하게 만들어 그 끝에다 솔방울

을 꿰어 휩 던지는 '솔방울 멀리 던지기'를 했는데 아주 멀리 던졌단다.

팽이치기도 많이 하셨는데 나무 한가운데를 잘라 낮으로 깎고 가운데에 쇠구슬을 박아 썼다. 끈은 삼을 쓰기도 했는데 귀해서 거의 못쓰고 닥나무 껍질을 많이 썼단다. 놀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 둘레를 팽이를 치며 누가 빨리 돌아오나, 두 번째는 한 번 세계 쳐서 돌려놓고 뽕박질을 해서 집 둘레를 돌아온 횟수를 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이 놀이는 팽이도 잘 돌려야 하지만 뛰기도 잘 뛰어야 한단다. 세 번째는 치기는 치되 감아쳐서 팽이를 마루에 올리는 나름 기술이었는데 스님은 동네에서 감아치기의 명수였단다.

구슬치기도 하셨는데 옛날에는 구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쪼 대라는 진흙으로 돌돌 말아 부뚜막 아궁이에 구워 썼다. 스님 구슬은 다른 아이들보다 야물게 만들어 쉽게 안 깨졌다. 겨울이면 썰매도 만들었고 살얼음 지나기 놀이도 했는데, 곧 꺼질 것 같은 얼음판을 차례로 미끄러지는 내기였다. 누군가 차례에 서는 반드시 얼음판이 깨진다고 한다. 그러면 대나무로 건져주고 불을 피워 옷을 말렸단다. 스님은 옛날에는 누가 놀이감을 비싸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놀이감을 누가 더 잘 만드느냐가 중요했다고 하셨다. 참 옳은 말씀이다.

내게 스님의 말씀은 장난감을 버려야 아이들이 놀고 심심해 야 아이들이 논다는 아이들 놀이의 명제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이 놀이를 언제 시작하겠는가. 교사가 놀자고 할 때? 아니다. 장난감을 사줬을 때? 아니다. 놀이는 심심해야 시작된다. 아이들을 심심하게 좀 놔두자. 좀 빈둥거리게 놔두자. 걸핏하면 이것하고 놀자, 저것하고 놀자, 저기 가서 놀아라, 캠프 가서 놀아라, 프로그램 좋은 거 있더라, 그러지 말고 심심하도록 빈둥거리도록 제발 좀 아이들을 놔두자.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심심하네. 뭐하고 놀지. 뭐라도 해야겠네.” 이런 마음이 솟아난다. 이게 아이들 스스로 놀이가 시작되는 때이다.

나는 묻는다. 당신은 아이들을 심심하게 내버려두는가? 아니면 심심해 할까 봐 스마트폰과 손바닥 게임기를 덜렁 사주는가? 스마트폰과 손바닥 게임기는 아이들 마음과 눈과 뇌를 녹인다. 이미 녹아버린 아이들이 절반이다. 게임을 끊겨라. 그러면 아이들은 놀이를 먹을 것이다. 거꾸로 게임을 폭식시켜라. 그러면 아이들은 놀이를 내다 버릴 것이다. 게임과 놀이는 뿌리부터 다르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여주고 어른들끼리의 이야기에 집중하려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아이의 눈을 보라고, 아이의 손을 잡으라고, 아이와 이야기를 하라고, 스마트폰은 아이들 놀이의 무덤이라고…….

## 사주지 마시라

아이들은 엄마아빠와 놀고 싶은데  
아이들은 동무들끼리 놀고 싶은데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장난감을 사서 손에 쥐어주고  
한꺼번에 책을 사주고  
물건을 사주고 게임기를 사주고  
어디를 자주 보낸다  
사지 마시라  
사주지 마시라  
사주면 아이들은 놀지 못한다  
사주면 아이들 놀이는 멈춘다  
사주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르는 돌보다 못한  
값비싼 장난감부터 내다 버려야 한다

부모가 사다 준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  
아이들의 자유는 그 속에 갇히고  
아이들의 퍼덕거리던 몸짓은 잦아든다  
세상은 사야 한다고 날마다 떠들어대지만  
아이들은 사주지 말아야  
맨손과 맨발이어야 아이들로 자란다  
사지 말아야 놀이는 시작한다  
뭐가 없어야 놀이는 시작한다  
심심해야 놀이는 시작한다  
사지 않고 사주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돈 비린내 진동하는 화폐의 세상을 사는  
참된 부모는 사지 않는 사람이다  
어떻게든 사지 않고 아이와 지내는 사람이다  
사지 않고 아이와 노는 사람이다

아이들, 놀기 위해 세상에 오다